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업무 이관

기능 확대…환경기술, 환경산업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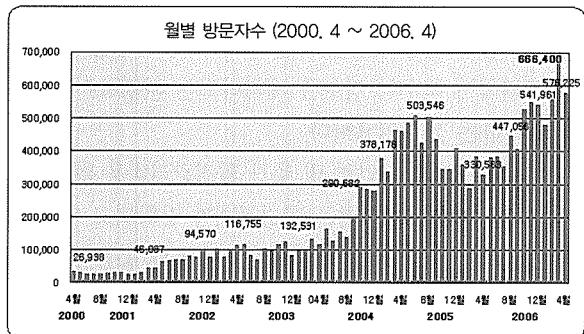


환경분야의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가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이전해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조정에 따라 그동안 환경관리공단에서 담당해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 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정부·학계·산업체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국내·외 환경산업·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발전 시킬 목적으로 1999년 6월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환경산업·기술정보제공 전문사이트인 KONETIC을 운영하고 있다.

KONETIC은 일평균 정보이용자 19천명, 회원 4만명을 보유한 국내최대 환경포털 사이트로 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등 5개의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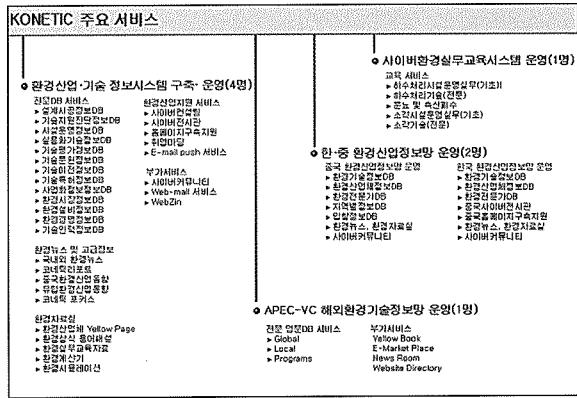


주요 서비스는 국문·영문·중문 환경DB 40만건을 제공하고, 사이버컨설팅, 사이버전시관, 취업마당, 홈페이지구축지원, E-mail 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 R&D 관리 전문기관으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KONETIC 업무의 인수로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2004.12)으

로 진흥원의 주요사업 중에 『환경기술·산업 정보의 수집 및 보급사업』이 명시됨에 따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진흥원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요자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 토양오염확산방지기술 등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환경기술 및 R&D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산업체는 국내 최대 환경포털사이트인 KONETIC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김영화 원장은 “KONETIC은 환경정보 제공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환경정보포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 · 기술정보시스템 운영

- 전문DB 서비스 : 환경시설설치운영, 환경기술, 환경사업 및 경영, 일반안내 등 4개 분야 14개 전문DB 388천 건 서비스
 - 사이버컨설팅 : 환경시설의 설치 · 운영상의 애로기술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사이버환경전시관 : 환경산업체의 기술, 설비, 제품

을 사이버공간에 전시·홍보하여 환경산업시장 활성화
도모

· 홈페이지구축지원 : 중소환경산업체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홍보기반 지원

- 취업마당 : 환경기술 인력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호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기반 구축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운영

- 국내 환경산업 및 기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해외 환경시장 진출 지원

- APEC 회원국간 정보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환경 문제 해결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운영

- 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지식교육체계 구축으로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운영

- 중국환경시장 정보를 국내 환경산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마련

- 국내환경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국시장 수출증대기반 마련

